우바이 최초 부처님 수기 받은 '승만부인'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② 딸에게 편지를 보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 Sravasti)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머무르고 계셨다. 그때 파사닉(波斯匿, Prasenajit)왕과 말리(末利, Mallika)부인이 불법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왕과 부인 두 사람이 서로 의논했다.

"우리 딸 승만(勝鬘, Srimala)은 영리하고 슬기로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을 뵈옵는다면 반드시 불법을 속히 이해하여 마음에 의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때 편지를 보내 그의 도에 뜻을 두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인이 왕에게 말했다

"지금 바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과 부인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편지를 써서 곧 찬다라(Candara)라는 궁녀를 시켜 승만에게 편지를 전하게 했다. 찬다라는 편지를 가지고 아유사국(阿踰耆國, Ayodhya)으로 가 궁에 있는 승만에게 공경히 편지를 전했다.

〈승만경〉은 파사닉(波斯匿)왕과 그의 비, 말리부인이 불법을 믿기 시작한 뒤 아유사국으로 시집간 딸에게도 불법을 믿을 것을 권하고자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딸을 생각하는 부모의 정이 은은하게 배여 있다.

파사닉왕은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왕으로 고대 인도의 강대국 중의 하나였던 코살라국의 왕이었다. 일설에 부처님과 나이와 생일이 같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가장 자주 만났던 왕이 파사닉왕이다. 물론 마가다(Magadha)국의 빈비사라(頻毘娑羅: Bimbisara)왕도 부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영축산을 자주 찾아가 법문을 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잡아함경〉 등 아함부 경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이 파사닉왕이다.

〈잡아함경〉에 들어있는 소경(小經)인 〈복전경(福田經)〉에는 기원정사를 찾아온 파사닉왕이 부처님께 "어떤 곳에 보시해야 큰 과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하고 물어 그 공덕에 대하여 부처님 말씀을 듣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승경전인 〈능엄경〉에도 부처님이 파사닉왕에게 불생불멸하는 여래장묘진여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다.

기수급고독원을 지어 부처님께 바친 수탓타 장자가 그의 신하였으며 그의 아들 기타태자가 정사를 지을 땅을 수탓타에게 팔고 숲을 기증하여 절 이름을 기수급고독원이라 했다고 한다. 부처님이 25년을 머무셨다는 기원정사의 본래 이름이다.

또 파사닉 왕은 우전왕처럼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불상을 만들게 된 동기는 〈증일아함경〉에 설해진 내용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생모였던 마야부인을 만나기 위하여 도리천(忉利天)에 올라가 석 달 동안 기원정사를 떠나 있을 때 코삼비국의 우전왕이 몸에 병이나 부처님을 몹시 그리워하다가 신하의 권유를 받아들여 우두산에 있는 전단향나무로 5척의 불상을 만들어 부처님이 계시던 기원정사 향실에 모셔 두었는데 이것이 부처님 재세시에 만든 최초의 불상이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나라 코살라국(舍衛國)의 파사닉왕도 자마금(紫磨金)으로 철불을 만들어 2구의 불상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승만경〉은 파사닉왕의 가족인 왕과 비 그리고 공주인 승만이 불법 인연이 깊었다는 선근(善根)에서 시작되는 경이다.

부처님으로부터 2만아승지겁 이후에 보광여래(普光如來)가 될 것이라는 수기(授記)까지 받은 승만 부인은 재가 여성으로서 최초의 수기를 받은 사람이다. 승만 부인의 남편인 우칭왕까지 부처님 법을 믿게 해 함께 대승법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하였다.

〈승만경〉에 대한 주석서는 중국의 수(隋)나라 때 삼론종을 세운 길장(吉藏, 549~623)이 〈승만경보굴(勝鬘經寶窟)〉을 지었는데 승만경에 대한 가장 자세한 주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원효도 〈승만경소〉를 지었으나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세음보살의 '자리이타 이타구세'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㉕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전하면서 신앙 중심은 개인적 해탈을 위한 자력 중심의 수행에서 타력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불교 시대와는 달리 대승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중생구제와 성불' 이라는 대승불교의 목표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였고, 한편으론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면 석가모니불 한 분만을 인정했던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등과 같이 시간적 다불(多佛)과 사방불, 오방불. 시방불 등 공간적 다불을 인정하며 많은 부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보승불, 아촉불 등과 같은 많은 부처님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부처님의 사상에 따라 많은 대승경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살들 중에는 대승불교 이념의 실천을 위해 개인적 깨달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체중생을 구제하여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서원과 대비심을 실천하는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 들이 대거 출현하게 됩니다.

이 '마하살(摩訶薩)' 은 인도 범어로 'mahāsattva(마하싸트바)' 라고 하는데 한역으로는 '대사(大士)' 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자신의 성불과 함께 수많은 중생들을 모두 성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서원과 대비심을 실천하는 위대한 사람' 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대승불교 이념의 실천을 위해 끝없는 서원과 대자대비심의 실천을 행하는 많은 대보살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과 같은 수많은 '보살마하살' 들이 함께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실천수행은 이행도(易行道)로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속에서 신앙적 가피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리이타의 서원으로 중생구제의 대승보살도 완성을 통해 출세간적 목표인 성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님의 실천수행은 세상을 널리 구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대승불교 신앙으로써 불교의 신앙세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종교적 가피를 구하며 개인의 성불 수행과 더불어 일체중생의 구제완성을 실천하는 수행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수행이며 이타구세(利他救世)의 수승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신행과 수행은 오늘날까지 대승불교의 정통성을 이어온 대표적 성불의 수행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히 믿고 의지하며 신앙해야 할 관세음보살은 이미 성불한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힌두교의 최고 신인 '자재천신(Īśvara)' '시바신(Śiva)' '비슈뉴신(Viṣṇu)' 등의 위신력과 가피력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부처를 이루신 대보살이시기에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신통력과 위신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구제와 대자대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우리들이 마음껏 신앙해야 할 종교적 대상이며 구세자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미 성불하신 부처라는 사실은 여러 경전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은 이미 성불한 '정법명여래' 부처님이라고 증명하였고, AD 7세기 말에 성립된 밀교경전인 〈금강정경〉에서는 '관자재왕여래' 라고 이미 성불한 부처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② 번뇌 소멸에 대한 앎과 봄

'있다'는 망념 바로 알아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 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참되게 알고 나면 환영(幻影)인 세상에서는 진정 들을 것이 없다.

'아나타삔디까' 라는 이름은 장자 수닷따의 별명으로 '의로운 이를 부양하는 자' 라는 뜻이다. 그는 성도(成道) 1년이 채 안 되신 부처님과의 첫 만남에 정사를 짓기로 약속드렸다. 그는 싸밧티 시에 있는 제따 태자의 공원을 사려 한다. 태자는 팔지 않으려고, "땅 전체에 금을 깔면 팔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태자의 말대로 진짜 땅에 금을 깐다. 정사를 지으려는 그의 진심에 감동한 태자는 공원을 무상으로 기부했고 그는 정사를 지어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 어떻게 아나타삔디까는 '의로운 이를 부양하는 자' 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수다원과를 얻어 '물질 자체가 환(幻)이다' 라는 물질에 대한 앎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입류(入流)한 자로서 그는 '나' 라는 존재를 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수용하고 진리의 길을 가고자 발심하여 온전히 내맡긴, 수행자가 된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수행자' , 참 뭉클한 이름이다. 수행자란 세상의 '편리함' 과 세상을 떠난 '불편함' 이 그저 '생각' 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자다. 세상의 유혹을 바르게 보려고, 그 '불편함' 을 자유로 알고 선택한다. 수행자는 물질을 바르게 보려고 신구의(身口意)를 행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법문에 관해 설할 것이다. 듣고 잘 새겨라. 내가 설명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앎과 봄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또한 잘 보기 때문에 말한다."

'모든 번뇌' 는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번뇌, 존재에 대한 번뇌, 견해에 대한 번뇌, 무명에 대한 번뇌 등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번뇌를 통칭한다. 정신과 물질의 틈 없는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법문을 설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앎과 봄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또한 잘 보기 때문에 말한다' 는 아주 중요하다. 이 문장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언어라는 수단을 이용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함에 있어 나는 '나' 가 있어서, '나의 것' 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나' 라고 하는 '몸과 마음' 을 가지고 말 할 수 없다. 그것은 행위자가 있어, 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앎' 에서 흘러나온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 전체는 '몸과 마음' 으로써 설해진 것이 아니라 '앎' 자체에서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앎과 봄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알고 잘 보기 때문에 말하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강조하신 것이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글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자로, 이 한 문장 안에 오래 오래 머물러야 할 것이다.

나는 오온이 내가 아닌 줄 알고 말하지만, 듣는 이는 말하는 이를 나로 알고 들으니 어디에 교착점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내가 오온을 통해 말을 하고 있어, 그에게 오온을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 허물이 있는가? 말하고 듣는 곳에 둘 다 없다고 못하지만, '있다'는 그 망념을 바로 알면 1만 근의 무게도 거뜬히 들 수 있느니라.

〈(사)여시아문 선원장〉



탈종공고

- 사찰명 : 밀림사
- 주 지 : 지웅 (속명 : 강재규)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1길 12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화엄정사
- 주 지 : 월산 (속명 : 천순선)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115번길 14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